

## 가상적 딜레마와 실생활 딜레마에 관한 토론 상황에 나타난 어머니와 자녀의 도덕적 추리수준<sup>1)</sup>

김 광 응 · 조 윤 정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가상적 딜레마와 실생활 딜레마에 관한 토론상황에서 어머니와 자녀가 보여준 도덕적 추리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실생활 딜레마를 사용하는 것이 인지도덕성 평가에 타당하고, 또 도덕성 교육에서도 유익할 것이라는 점을 탐색해 보려는 데 있었다. 서울에서 표집한 50가정의 어머니와 그 자녀(6학년 아동)가 연구대상이 되었으며, Kohlberg의 도덕발달단계로 표시되는 OISE도덕성 검사지와 Powers의 DECS 상호작용분석체계가 측정 및 분석도구로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어머니들은 실생활 딜레마에서 도덕적 추리수준이 가상적 딜레마에서 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아동들은 중간단계인 3단계와 4단계로 동질화되는 경향을 보였을 뿐 어머니들의 경우처럼 도덕적 추리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어머니들이 토론에서 사용한 담화를 분석한 바, 실생활 딜레마에서 정보적 유형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어머니와 자녀간 도덕적 추리수준의 상관은 가상적 딜레마에서는  $r=.35$ 인 반면, 실생활 딜레마에서는  $r=.50$ 으로 실생활 딜레마에서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Walker와 Taylor(1991)의 견해를 근거로, 인지 도덕성 평가에서 실생활 딜레마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수 있으며, 교육장면에서도 실생활 딜레마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가치있는 일이라는 점을 논의하였다.

핵심어 : 도덕적 추리 · 가상적 딜레마 · 실생활 딜레마 · 상호작용 유형

본 연구는 도덕적 갈등에 관한 母-子女 토론에서 가상적 갈등상황과 실생활 갈등상황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분석하려는 것이다.

도덕성 연구에 관한 인지발달론적 접근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상적인 도덕적 갈등상황을 제시하

고, “당신이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등 검사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을 분석하여 도덕성 발달수준을 측정하였다. 이와 같이 가상적인 딜레마(hypothetical dilemma)를 사용한 이유는, Kohlberg에 의하면, 개

인적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도덕적 갈등에 몰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Colby, A., & Kohlberg, L., 1987). 이러한 Kohlberg의 접근에 대해 Baumrind(1978), Haan(1975, 1977), Giligan과 Belenky(1980) 등은 가상적 딜레마는 연구대상에게 친숙한 것도 아니고 상관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제에 동일시하거나 정서적으로 관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즉, 교과서적인 가상적 도덕적 딜레마가 한 개인의 도덕성 발달수준을 평가하는데 과연 적합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가상적 딜레마의 대안은 실제 딜레마(actual dilemma)인데, 이 두가지 접근간의 차이에 대한 연구들도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가상이 아닌 실제 딜레마를 소재로 다룰 때에도 두가지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공통의 관심사로서의 실제 딜레마이고, 다른 하나는 순전히 사생활에서 직접 개인적으로 겪는 딜레마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연구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 Kohlberg, Scharf 그리고 Hickey(1971)는 죄수를 대상으로 교도소 딜레마(prison dilemma)를 가상적 딜레마와 비교하였고, Higgins, Power 그리고 Kohlberg(1984)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딜레마(school dilemma)를 가상적 딜레마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가상적 딜레마<sup>1)</sup> 보다 실제 딜레마에서 보다 낮은 수준의 도덕적 추론능력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를 얻게된 이유에 대해 연구자들은 교도소의 강압적이고 착취적인 분위기나, 학교의 비민주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그 증거로서 Higgins 등(1984)의 학교 딜레마 연구를 "민주적인 학교"에서 수행한 바, 두 딜레마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음을 제시하였다.

Giligan과 Belenky(1980)는 부인들을 대상으로 문제임신(problem pregnancy) 딜레마와 가상적 딜레마에 나타난 도덕적 추리능력을 비교한 바, 45%의 부인들이 실제 딜레마(문제임신)에서 높은 점수를, 15%는 낮은 점수를 얻었다고 한다. 또한 대학생들의 자유언론운동(Free Speech Movement)문제와 가상적 딜레마를 소재로 도덕적 추리능력을 비교한 Haan(1975)의 연구에서도 42%가 실제 딜레마에서 높은 점수를, 22.3%는 낮은 점수를 얻었다고 한다. 이와같이 실제 딜레마에서 한단계씩 높은 수준의 도덕적 추리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기는 하였으나, Kohlberg와 Candee(1984)의 재분석 연구에 의하면, 실제 딜레마에서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추리가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Walker, de Vries 그리고 Trevethan(1987)은 가상적 딜레마 보다 실제 딜레마에서 한 단계 높은 도덕수준을 보인 것은 연구대상자들에 의한 결과라기 보다 연구자들에 의한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이들 부류의 연구를 수행한 Haan(1975)이나 Smetana(1982) 등에 의하면, 많은 연구대상자들이 대학생들의 주장이나 임신 중절 등의 공통 이슈를 전혀 도덕적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한 바도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해보면, 공통의 관심사로 취급될 수 있는 실제 딜레마도 가상적 딜레마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발달수준을 평가하는데 아주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다른 하나의 대안은 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실생활 딜레마(personally generated real-life moral dilemma)를 도덕성 발달수준평가에 적용하는 것이다.

1) 이들 연구에서 가상적 딜레마란 Kohlberg 등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Heinz 이야기 등으로서 표준 딜레마(standard dilemma)라고도 함.

그러나, 이러한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아직 흔하지 않다. Walker 등(1987)이 80 가족을 대상으로 가상적 딜레마와 실생활 딜레마의 두 상황에 나타난 부모와 자녀의 도덕적 발달수준을 비교한 연구가 있을 뿐이고, 아직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Walker 등은 이 연구에서, 가상적 딜레마에서의 도덕적 추리수준이 실생활 딜레마의 경우보다 약간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즉, 부모들은 가상적 딜레마 상황에서 3/4단계에 70~80%가 몰려있었으나, 실생활 딜레마 상황에서는 80%가 3단계와 3/4단계로 나누어져서 도덕적 추리능력이 다소 하향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소개한 Kohlberg 등(1971), Higgins 등(1984)의 공통적 관심의 딜레마 연구와는 그 결과가 유사하지만, Giligan과 Belenky(1980) 그리고 Haan(1975)의 연구결과와는 다르다.

그러나, 실상 이상의 연구결과들 만으로는 가상적 딜레마에 의한 도덕적 발달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공통의 실제적 문제에 의한 평가가 타당한지, 또는 개인적 체험의 실생활 딜레마에 의한 평가가 타당한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느 경우가 도덕성 발달수준을 타당하게 표현해주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준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 어떤 딜레마 상황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수 있을가를 짐작케해주는 다른 하나의 연구가 Walker에 의해 수행되었다. Walker와 Taylor(1991)는 가상적 딜레마에 의한 토론상황에 나타난 부모와 자녀간 도덕적 추리능력의 상관과 아동이 직접 겪은 실생활 딜레마에 관한 토론상황에 나타난 부모와 자녀간 상관을 비교한 바, 실생활 딜레마에 나타난 상관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한다. 즉, 가상적 딜레마에서의 상관은父子간  $r=.35$ ,母子간  $r=.20$ , 부모자녀간  $r=$ .33인 반면, 실생활 딜레마에서는父子간  $r=.48$ ,

母子간  $r=.59$ , 부모자녀간  $r=.57$ 의 상관계수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Walker와 Taylor는, 실생활 딜레마는 자녀의 도덕적 추리능력 수준을 가상적 딜레마보다 타당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로서 부모와 자녀의 정상적인 도덕적 상호작용을 대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논의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학교의 도덕성 교육에서도 종전처럼 가상적 딜레마를 상정하고 도덕적 훈련을 시킬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일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상황을 통해서 도덕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유용하다는 Power 등(1989)의 주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Walker 등(1987)이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들이 경험한 실생활 딜레마를 도덕적 추리능력의 평가주제로 활용한 상기연구를 계기로 나타난 또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도덕적 추리능력을 판단하는 평가상황이다. 즉 이전에는 검사자와의 개별 면접상황에서 얻은 자료로서 도덕성 발달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주된 방법이었으나, Walker 등은 실생활딜레마를 도입하면서 토론상황에 나타난 내용을 평가자료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가상적 딜레마이든 실생활 딜레마이든 도덕적 발달수준 평가에서 개별면담상황이 아닌 토론 상황을 적용한 것도 도덕성 발달 수준 평가에서 진일보한 측면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개별면담상황은 보다 교과서적이고 시험보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람직성(desirability)에 의한 반응의 가능성이 큰 반면, 토론 상황은 덜 교과서적이고 결과적으로 바람직성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토론상황은 Power 등(1989)의 지적과 같이 교육적 활용가치도 높기 때문에 평가의 타당성뿐 아니라 유용성에서도 유리하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가상적 딜레마와 실생활 딜레마에 의한 어머니와 자녀간의 토론 상황에 나타난 도덕적 추리수준을 비교하고, 우리의 문화상황에서도 실생활 딜레마에 의한 도덕성

발달수준의 평가가 가상적 딜레마에 의한 평가보다 타당하고 유용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12세) 아동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상적인 도덕적 딜레마와 실생활 딜레마의 두 조건을 설정하고, 이 두 조건에서 어머니와 자녀가 벌린 토론상황에 나타난 도덕적 추리수준을 분석하였다. 가상적 딜레마에 관한 토론은 Kohlberg에 의해 만들어진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하인츠 이야기”와 “탈옥수 이야기” 등 두 가지의 표준 딜레마를 토론 주제로 사용하였으며, 실생활 딜레마에 관한 토론은 검사자가 자녀와의 개별면담을 통해서 확인한 “근래 아동이 직접 경험한 도덕적 문제”를 토론 주제로 사용하였다.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와 아동의 도덕적 추리능력 수준은 가상적 딜레마에 관한 토론상황과 실생활 딜레마에 관한 토론상황에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

둘째, 이상의 두 상황에서의 母-子女 상호작용 유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각각의 토론 상황에 나타난 어머니의 도덕적 추리수준과 자녀의 도덕적 추리수준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방 법

### 대 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내 소재 초등학교 6학년 아동과 그 어머니의 50가정이었다. 처음에는 70가정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에 착수하였으나, 아동이 실제로 경험한 도덕적 갈등을 제시하지 못한 12사례와 도덕적 갈등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토론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도덕적 발달수준을 평가하기 곤란한 8사례를 제외시키고 50가정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아동 중 남자는 27명,

여자는 23명이었다.

### 도 구

#### 1) 도덕성 검사

본 연구에서 어머니와 자녀의 도덕적 추리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는 OISE(Ontario Institute of Studies in Education) 테스트이다. OISE 테스트는 캐나다 온타리오 교육연구소에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제작한 Kohlberg 도덕성 검사지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아동의 도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Kohlberg의 “하인츠 이야기”와 “탈옥수 이야기”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하였고, OISE의 “중대장 이야기”를 그대로 번역하여 세가지 갈등 이야기를 한국판 OISE 검사에 사용하였다(김안중 등, 1982). 본 연구에서는 Kohlberg의 4단계 이상에서만 유용한 판별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중대장 이야기”는 제외하고, “하인츠 이야기”와 “탈옥수 이야기”만을 가상적 딜레마의 토론 주제로 사용하였다.

실생활 딜레마의 토론 주제는 연구대상 아동이 검사자(연구보조원)와의 개별 면담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도덕적 문제라고 진술한 딜레마”를 사용하였다. 아동들이 진술한 도덕적 갈등의 내용은 시험부정행위와 관련된 문제(30%), 친구와의 싸움이나 우정과 관련된 문제(24%), 선택갈등(16%), 잘못의 고백이나 고자질과 관련된 문제(12%), 훔치기와 관련된 갈등(6%), 약속(4%) 등이었다.

토론내용에 대해 사용한 내용분석과 채점방식은 OISE 채점요강(김안중 등, 1982)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 2) 상호작용 분석 도구

어머니와 자녀간의 토론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Walker와 Taylor(1991)가 제작한

DECS(Developmental Environments Coding System)였다. DECS는 말하는 사람의 담화목적 을 분류하여 유형화한 것으로, Berkowitz와 Gibs(1979), 그리고 Powers 등(1983)이 가족내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DECS 는 담화(speech)를 그목적에 따라 조작적(operational), 반영적(representational), 정보적(informative), 지지적(supportive), 충돌적(conflictual), 의도적 방해(cognitive interfering) 등의 범주로 구분하는 내용분석의 부호화 체계이다. 각 범주의 의미와 그 범주에 해당하는 담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작적** : 상대방의 추론을 조작하는 것으로서 방어적 자기주장, 비판, 도전적 요청, 양보, 반대 의견, 명료화(정당화) 등의 의도가 담긴 담화가 이에 속한다.

**반영적** : 상대방의 추론을 유도하거나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서 비경쟁적 부연, 이해도 확인, 비도전적 요청 등의 의도가 담긴 담화가 이에 속한다.

**정보적** : 상대방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새로운 정보나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토론의 종결유도, 경쟁적 의견진술(정보제공), 변화의 요구, 단순한 불찬성, 단순한 의견진술, 단순한 동의 등의 의도가 담긴 담화가 이에 속한다.

**지지적** : 상대방에게 생각을 격려하거나 토론의 분위기 완화를 위하여 유머를 하는 것으로, 격려와 비도전적 유머의 의도가 담긴 담화가 이에 속한다.

**충돌적** : 상대방이 저항하거나 상대방을 위협하는 등의 의도가 담긴 담화로서, 반항, 위협, 분노, 비난 등의 의도가 담긴 담화가 이에 속한다.

**의도적 방해** : 의도적으로 대화나 토론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주제로부터 이탈하여 딥소리하기, 혼란시키기, 거부나 거절 등의 의도가 담긴 담화가 이에 속한다.

## 절차 및 채점

### 1) 개별면담

우선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아동과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즉, 자신이 직접 경험한 도덕적 갈등문제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처음에 70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자신의 도덕적 갈등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었던 아동은 58명이었다. 면담내용은 연구자도 기록하였으나, 아동자신에게도 기록하도록 하였다. 기록에 포함된 내용은 : 옳은지 그른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도덕적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갈등하게 만든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해야할까를 고민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결국,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것은 옳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등이었다. 아동들이 실제로 경험한 도덕적 갈등의 주요 내용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 2) 가상적 딜레마에 관한 토론

어머니와 자녀의 토론은 아동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서 방과후 시간에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제시한 두개의 이야기("철수와 라디오약"과 "탈옥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토론하도록 하였다. 검사자(3명의 대학원생)는 녹음장치를 해 놓고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교실 밖으로 나와서 토론이 끝날때까지 기다렸다. 토론시간은 평균 30~40분 정도 걸렸다.

### 3) 실생활 딜레마에 관한 토론

실생활 딜레마에 관한 토론은 가상적 딜레마 토론이 끝난 후 약 10분쯤 다과를 들며 휴식을 취한 후 실시되었다. 검사자는 "이번에는 ○○(아동 이름)가 실제로 겪은 도덕적 갈등을 가지고 토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가상적 딜레마와 마찬가지로

로 검사자는 녹음장치를 해 놓고 교실밖으로 나와서 토론이 끝날때까지 기다렸다. 실생활 딜레마의 토론시간은 50~70분이 걸렸다.

#### 4) 채점과 자료분석

녹음된 토론자료는 3명의 검사자와 연구자에 의해 앞에서 제시한 OISE 테스트 채점 요강과 DECS 부호화체계에 따라 분석하였다(참조: 김광웅, 조운정, 1994). 내용분석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채점자들은 몇차례에 걸친 예비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치도가 80~90% 이상 되었다고 판단된 후 개별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애매한 사례는 채점자들의 협의를 거쳐서 확정되었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덕성 발달단계를 결정할 수 없는 8사례를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50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통계처리 방법

채점결과 얻어진 자료는 분석의 성격에 따라 빈도, 백분율을 계산하거나 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 결 과

### 1. 가상적 딜레마에 관한 토론상황과 실생활 딜레마에 관한 토론 상황에 나타난 도덕적 추리수준 비교

#### 1) 아동

연구대상 가정의 자녀들이 가상적 딜레마에 관한 토론 상황과 실생활 딜레마에 관한 토론 상황에서 보여준 도덕적 추리능력 수준은 표 1과 같다.

표 1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두 상황에서의 도덕적 추리능력은 전반적으로 보아 큰 변동은 없으나, 가상적 딜레마의 경우에 비해 실생활 딜레마에서 2단계와 5단계에 속한 아동의 수는 감소하는

표 1. 가상적 딜레마와 실생활 딜레마에 나타난 아동의 도덕적 추리수준

( ) 안은 %

| 도덕성 발달 단계 | 가상적 딜레마 | 실생활 딜레마 |
|-----------|---------|---------|
| 2단계       | 12(24)  | 7(14)   |
| 3단계       | 23(46)  | 28(56)  |
| 4단계       | 10(20)  | 24(28)  |
| 5단계       | 5(10)   | 1(2)    |
| 계         | 50(100) | 50(100) |

경향을 보인 반면, 3단계와 4단계에 속한 아동의 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상적 딜레마에 비해 실생활 딜레마에서 2단계는 10%, 5단계는 8% 감소하고, 반면 3단계는 10%, 4단계는 8% 증가하였다. 즉, 실생활 딜레마에서 아동의 도덕적 추리능력은 가상적 딜레마의 경우 보다 동질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가상적 딜레마와 실생활 딜레마에서 아동들의 도덕적 추리수준의 차를 개별적으로 비교한 결과, 두 상황에서 동일한 단계에 속한 아동(즉, 변동이 없는 아동)은 20사례(40%), 실생활 딜레마에서 높은 단계에 속한 아동은 16사례(32%), 그리고 실생활 딜레마에서 도덕단계가 낮아진 아동은 14사례(28%)였다. 이상의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상적 딜레마에서 실생활 딜레마로 도덕적 추리상황이 바뀔 때 따라 60% 가량의 아동들은 도덕적 추리능력 수준이 상승 또는 하강하는 변화를 보였으며, 중요한 변화의 특징은 가상적 딜레마 보다 실생활 딜레마에서 도덕적 추리능력이 동질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2) 어머니

연구대상 어머니들이 가상적 딜레마에 관한 토론상황과 실생활 딜레마에 관한 토론 상황에서 보여준 도덕적 추리능력 수준은 표 2와 같다.

표 2를 보면,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경우와 달리, 실생활 딜레마에서 가상적 딜레마 보다 도덕적 추

표 2. 가상적 딜레마와 실생활 딜레마에 나타난 어머니의 도덕적 추리수준

( )안은 %

| 도덕성 발달 단계 | 가상적 딜레마 | 실생활 딜레마 |
|-----------|---------|---------|
| 2단계       | 3(6)    | 8(16)   |
| 3단계       | 24(48)  | 25(50)  |
| 4단계       | 15(30)  | 11(22)  |
| 5단계       | 8(16)   | 6(12)   |
| 계         | 50(100) | 50(100) |

리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상적 딜레마 보다 실생활 딜레마에서 2단계에 속한 어머니는 10%, 3단계에 속한 어머니는 2% 증가한 반면, 4단계에 속한 어머니는 8%, 5단계에 속한 어머니는 4% 감소하였다. 즉 실생활 딜레마보다 가상적 딜레마에 관한 토론에서 어머니들은 다소 높은 수준의 도덕적 추리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가상적 딜레마와 실생활 딜레마에서의 어머니들의 도덕적 추리수준의 차를 개별적으로 비교한 결과, 두 상황에서 동일한 단계에 속한 어머니는 16사례(32%), 실생활 딜레마에서 높은 단계에 속한 어머니는 13사례(26%), 그리고 실생활 딜레마에서 도덕 단계가 낮아진 어머니는 21사례(42%)로 나타났다. 자녀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실생활 딜레마에서 자녀들보다 많은 수의 어머니들의 도덕적 추리수준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 2. 가상적 딜레마에 관한 토론상황과 실생활 딜레마에 관한 토론상황에서 보여준 母-子女 상호작용 유형

가상적 딜레마와 실생활 딜레마에 관한 토론에서 어머니가 진술한 담화의 내용을 분석해서 얻은 상호작용 유형별 분포는 표 3과 같다.

DECS 분석 방법에 따라 어머니의 담화를 분석한 바, Walker와 Taylor(1991)가 상정한 6개 범

표 3. 가상적 딜레마와 실생활 딜레마에 나타난 母-子女 상호작용 유형

( )안은 %

|     | 가상적 딜레마 | 실생활 딜레마 |
|-----|---------|---------|
| 조작적 | 19(38)  | 14(28)  |
| 정보적 | 9(18)   | 23(46)  |
| 반영적 | 9(18)   | 8(16)   |
| 지지적 | 13(26)  | 5(10)   |
| 계   | 50(100) | 50(100) |

\* ( $\chi^2=11.36, p<.01$ )

주 중 “의도적 방해”와 “충돌적” 유형에 속하는 경우는 없었고 표 3과 같이 연구대상 모두가 조작적, 반영적, 정보적 및 지지적 유형의 4개 범주에 속하였다. 표 3의 결과를 보면, 가상적 딜레마에서 큰 변화를 보인 유형은 정보적 유형과 지지적 유형이고 반영적 유형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즉, 정보적 유형은 가상적 딜레마에서는 9사례(18%)였다가 실생활 딜레마에서 23사례(46%)로 거의 3배나 증가한 반면, 지지적 유형은 가상적 딜레마에서 13사례(26%)이었으나 실생활 딜레마에서는 5사례(10%)로 약 1/3로 감소하였다. 조작적 유형도 실생활 딜레마에서 5사례가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보아 어머니들은 가상적 딜레마에서는 주로 조작적 유형이거나 지지적 유형이었다가, 실생활 딜레마에서는 정보적 유형과 조작적 유형으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상호작용 유형의 변화를 개별적으로 보면 조작적 유형에서 정보적 유형으로 바뀐 경우가 8사례, 지지적 유형에서 정보적으로 바뀐 경우가 7사례로 가장 많고, 지지적 유형에서 조작적 유형으로 바뀐 경우는 3사례였다.

본 연구에서 상호작용 유형은 어머니의 담화로만 분석하고 아동의 담화로는 분석하지 않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아동의 경우 담화의 수도 적고, 내용이 단순한 경우가 많아서 분석이 적절치 않았기 때문이다.

### 3. 도덕적 딜레마에 관한 토론 상황에 나타난 어머니의 도덕적 추리수준과 자녀의 도덕적 추리수준간의 상관

가상적 딜레마에 관한 토론 상황에서의 어머니의 도덕적 추리수준과 자녀의 도덕적 추리수준간의 상관은  $r = .35(p < .05)$ 였고, 실생활에 관한 토론상황에서의 상관은  $r = .50(p < .01)$ 으로서 실생활 딜레마에 관한 토론상황에 나타난 도덕적 추리능력에서 보다 높은 상관을 보여주었다.

## 논 의

본 연구에서 가상적 갈등상황과 실생활 갈등상황에 나타난 도덕적 추리능력을 비교하고자 한 궁극적 목적은 실생활 딜레마에 의한 도덕적 추리능력의 평가가 가상적 딜레마에 의한 경우보다 유용한가를 탐색하려는 것이었다.

실생활 딜레마로 도덕적 추리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가상적 딜레마로 평가하는 것보다 타당하고 교육적으로 유용하다는 점을 상당히 분명하게 논의한 학자는 Walker와 Taylor(1991)였다. 그들은 이를 지지하는 증거로서, 자녀가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실제 딜레마에 관한 부모-子女 토론상황에서 보여준 부모의 도덕적 추리수준이 검사자와의 개별적 면접이나 가상적 딜레마에 의한 토론 상황에서 보여준 도덕적 추리수준 보다 낮아지며(아동은 별 차이없음), 부모-子女간 도덕적 추리능력의 상관이 실생활 딜레마에서 상당히 높게( $r = .57$ )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개인면접이나 가상적 딜레마에 관한 토론 상황에 나타난 부모의 도덕적 추리능력은 현실에서 벗어난 허구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만일 이것이 허구적이지 아니라면 실생활딜레마에 관한 토론 상황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도덕적 추리능력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도덕성은 이와 같이 허구적

인 면이 있으나, 아동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그들의 판단이었던 것 같다. 실제로, Walker와 Taylor의 연구(1991)에서, 아동들은 가상적 딜레마에 관한 토론상황이나 실생활 딜레마에 관한 토론 상황에서 거의 같은 수준의 도덕적 추리능력을 나타내었다( $p = .271$ ).

또한 그들은 실생활 딜레마에 관한 토론상황에서 측정된 도덕적 추리능력에서 부모-자녀간에 높은 상관을 얻었으며, 이를 지지근거로 논의하였다. 부모와子女간 도덕적 추리능력의 상관은 전통적으로 아주 낮다. Walker와 Taylor(1991)의 연구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 우선 표준 딜레마에 의한 개별 면접으로 측정된 도덕적 추리 능력의 부모-子女간 상관은  $r = .11 \sim .20$  정도로 유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가상적 딜레마 상황에서 얻은 상관은  $r = .33$  수준으로 유의수준의 경계선 부근이었다. 그러나 실생활 딜레마에서는  $r = .57$ 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그들은 부모의 도덕적 추리능력이 자녀의 도덕적 추리능력을 예언할 수 있을 때 타당성을 가질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들의 관찰에 의하면 실생활 딜레마에 의한 부모의 도덕적 추리수준은 2년후 측정된 자녀의 도덕적 추리능력에 대해서도 예언력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근거로서 Walker와 Taylor(1991)는 개별면접에 의한 도덕적 추리능력 평가나 가상적 딜레마에 의한 평가는 단순한 한 시간 짜리의 실험실 표집에 불과하지만, 실생활 딜레마에 따른 평가는 부모와 자녀간의 진정한 사실적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의 도덕성 발달과 밀접히 관련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실생활 딜레마에 의한 도덕적 추리수준의 평가는 가상적 딜레마에 의한 평가보다 타당하며, 특히 아동들의 도덕성 교육에도 보다 유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본 연구는, Walker와 Taylor의 관점에서, 우리

의 문화에서도 실생활 딜레마에 의한 도덕적 추리 능력의 평가가 가상적 딜레마에 의한 평가보다 타당한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가상적 딜레마에 의한 토론 상황과 실생활 딜레마에 의한 토론 상황에 나타난 어머니와 자녀의 도덕적 추리능력 수준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두 상황에서의 도덕적 추리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가상적 딜레마의 경우보다 실생활 딜레마에서 도덕적 추리 수준이 동질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경우에는 실생활 딜레마에서 전반적으로 도덕적 추리수준이 낮아지는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Walker 등의 두 연구(1987; 1991)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즉, 아동은 두 상황에서의 도덕적 추리수준이 전체적으로 유사하지만, 어머니의 경우에는 실생활 딜레마에서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따라서 Walker와 Taylor(1991)의 생각과 같은 맥락의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 즉, 가상적 딜레마에 관한 토론상황에서 보여준 어머니들의 다소 높은 수준의 도덕적 추리수준은 본래적이기보다 바람직성에 의한 반응이고 교과서적일 것이라는 것이다.

어머니의 경우가 이러하다면, 자녀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아동들은 어머니들처럼 '실생활 딜레마에서 전반적으로 도덕적 추리수준이 하강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즉, 가상적 딜레마에서 2단계와 5단계에 속한 17명의 아동 중 9명이 3단계와 4단계로 한 단계씩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동질화 경향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실생활 딜레마에서 하강하거나 상승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어머니들은 낮아지는데 아동들은 왜 낮아지지 않을까? 아동들은 어머니들 보다 안정된 도덕적 추리능력을 가진 것일까? 아니면 상황의 변동에 상관없이 고지식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을 쉽게 찾을 수는 없다. 다만 어린이들은 도덕적 추리에서 부모들 보다 덜 교과서적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 같다. 또한,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어느 딜레마를 사용해도 도덕적 추리 수준의 평가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도덕적 추리수준이 실생활 딜레마에서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된 근원을 밝혀보기 위해 두 상황에 나타난 母-子女간 상호작용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즉, 어머니의 토론내용에 나타난 담화의 의도를 분석하여 두 상황에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정보적 유형은 2.5배 가량 증가한 반면 지지적 유형은 1/3로 감소한 것이 두드러진 차이였다. 즉 어머니들은 가상적 딜레마에서는 자녀와 지지적 상호작용을 하는 수가 꽤 많다가 실생활 딜레마에서는 훈계식(lecturing style)으로 상호작용하는 수가 훨씬 많아진다는 것이다. Walker와 Taylor의 연구(1991) 그리고 김광웅과 조윤정(1994)의 연구에 의하면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추리능력을 나타낸 상호작용은 반영적이고 지지적인 유형이고, 조작적이거나 정보적인 유형은 낮은 수준의 도덕적 추리능력과 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경우를 보면, 가상적 딜레마에서 조작적이거나 정보적인 유형은 56%였으나 실생활 딜레마에서는 74%로 증가하였고, 반면, 반영적이거나 지지적인 유형은 44%에서 26%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 유형의 변화를 도덕적 추리수준과 관련시켜 보면 어머니들의 도덕적 추리수준이 실생활 딜레마에서 낮아지는 근원을 간접적이거나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자녀와의 도덕적 딜레마에 관한 토론상황에서 토론의 주제가 가상적일 때 지지적이거나 반영적이던 어머니가 실생활 주제에서는 정보적이거나 조작적으로 바뀐 것이 어머니들의 도덕적 추리 수준을 낮추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라면, 어느 것이 어머니의 진면목일까? 즉, 가상적 딜레마에서는 지지적이거나 반영적이던 어머니가 실생활 딜

레마에서는 정보적이거나 조작적이라면 어느 것이 어머니의 인지적 도덕성을 지배하는 진짜 모습일까? 이에 대한 대답을 쉽게 할 수는 없지만,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딜레마에 관해서 토론할 때 나타난 상호작용 유형이 그 어머니의 진짜 모습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상적 딜레마에서 보여준 모습은 바람직성에 의해 나타난 교과서적이고 허구적인 것이 아닐까? 만일 이러한 논의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 어머니의 도덕적 추리능력은 실생활 딜레마로서 추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가상적 딜레마에서 일부 어머니들이 보여준 '실생활 딜레마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도덕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아마도 도덕성 발달의 인지적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앞에서는 교과서적이고 허구적일 것이라고 논의하였지만, 그보다는 인지 도덕성의 발달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도 같다.

다음으로 논의할 문제는 어머니와 자녀의 도덕적 추리능력간의 상관계수에 관한 것이다. 가상적 딜레마에서는 어머니와 자녀간 상관관계가  $r = .35$ 였고, 실생활 딜레마에서는  $r = .50$ 으로서 Walker와 Taylor의 연구(1991)에서와 같이 실생활 딜레마에 관한 토론 상황에 나타난 母-子女간 상관관계수가 높았다. Walker와 Taylor의 논의와 같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가 도덕적 추리능력을 제대로 평가했다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면, 분명히 실생활 딜레마에 의한 도덕성 평가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앞으로 실생활 딜레마로 평가된 도덕적 추리능력의 구인타당성(construct validity)를 더 풍부하게 확보해야만 이러한 주장을 뒷바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Walker와 Taylor의 연구(1991)에서와 같이 자녀의 미래의 도덕성 발달을 예측하는데 실

생활 딜레마가 더 높은 예언력을 갖는다면, 그것은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의할 문제는, 본 연구의 결과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성 교육의 인지적 접근에서 실생활 딜레마를 사용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유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구할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몇가지 논의는 가능할 것 같다.

첫째, 실생활 딜레마를 사용하여 도덕적 추리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가상적 딜레마를 사용하여 평가하는 것 보다 타당하다면, 당연히 도덕성 교육에서도 실생활 딜레마를 사용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며 교육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서 관찰된 바에 의하면 어머니와 아동들은 모두 실생활 딜레마에 관한 토론 상황에서 훨씬 더 '진지하고 리얼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그 증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토론에 소요된 시간이다. 가상적 딜레마에 관한 토론에 소요된 시간은 대개 30~40분이었으나, 실생활 딜레마에 관한 토론에 소요된 시간은 50~70분으로 거의 두배에 달했다. 또한 상호작용 분석에 나타난 어머니의 담화수를 비교해 보아도 유사한 짐작을 할 수 있다. 즉, 가상적 딜레마에서는 담화수가 240이었으나, 실생활 딜레마에서는 402개나 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상적 딜레마에서는 토론이 형식적이고 교과서적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실생활 딜레마에서는 보다 진지하고 활발하고 리얼한 토론이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어느 경우가 교육적으로 보다 더 유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참고 문헌

김광웅과 조윤정(1994). 母-子女상호작용 유형

- 과 아동의 도덕적 추리능력과의 관계. 生活科學研究 第9輯. 서울 : 淑明女子大學校 生活科學研究所, 243-258.
- 김안중, 박천환, 신재철, 조난심(1982). 한국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Baumrind, D.(1978). A dialectical materialist's perspective on knowing social reality. In W. Damon(Ed.),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 Moral development*(No. 2, pp. 61-82). San Francisco : Jossey-Bass.
- Berkowitz, M. W., & Gibs, J. C.(1979). *A preliminary manual for coding transactive features of dyadic discussion*. Unpublished manuscript, Marquette University, Milwaukee.
- Colby, A., & Kohlberg, L.(1987). *The measurement of moral judgement*(Vols. 1-2),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ligan, C., & Belenky, M. F.(1980). A naturalistic study of abortion decisions. In R. L. Selman & Yando(Ed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 Clinical-developmental psychology*(No. 7, pp. 69-90), San Francisco : Jossey-Bass.
- Haan, N.(1975). Hypothetical and actual moral reasoning in a situation of civil disobed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255-270.
- Haan, N.(1977). *Copying and defending : Processes of self-environment organization*. New York : Academic Press.
- Higgins, A., Power, C., & Kohlberg, L.(1984). The relationship of moral atmosphere to judgements of responsibility. In W. M. Kurtins & J. L. Gewirtz(Eds.), *Morality, mor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pp. 74-106). New York : Wiley.
- Kohlberg, L., Scharf, P., & Hickey, J.(1971). The justice structure of the prison—a theory and an intervention. *Prinson Journal*, 51(2), 3-14.
- Power, F. C., Higgins, A., and Kohlberg, L. (1989). *Lawrence Kohlberg's approach to moral education*.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Powers, S. I., Hauser, S. T., Schwartz, J. M., Noam, G. G., & Jacobson, A. M.(1983). Adolescent ego development and family interaction : A structural delopmental perspective. In H. D. Grotevant & C. R. Cooper (Ed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 Adolescent development in the family*(No. 22, pp. 5-25). San Francisco : Jossey-Bass.
- Smetana, J. G.(1982). *Concepts of self and morality*. New York : Praeger.
- Walker, L. J. de Vries, B., & Trevethan, S. (1987). Moral stages and moral orientations in real-life and hypothetical dilemmas. *Child Development*, 58, 842-858.
- Walker, L. J., Taylor, J. H.(1991). Family interactions and development of moral reasoning. *Child Development*, 62, 264-283.

## Moral Reasoning of Mother and Child in the Contexts of Hypothetical and Real-life Dilema

Kim, Kwang Woong · Cho, Yoon Chung

Department of Child Stud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moral reasoning of mother and child revealed in the contexts of a hypothetical dilemma and a real-life dilemma. Participants were 50 family dyads (mother and child, total  $N=100$ ), with children sampled from grades 6 in Seoul. Mother and child discussed both a hypothetical dilemma (Kohlberg's standard dilemma) and a real-life dilemma from the child's own experiences, which were scored for Kohlberg's moral developmental stage. Content analysis were also conducted for mother's "speech" in the discussion of both dilemmas in order to assess mother's interaction styl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mothers did use a slightly lower level of moral reasoning in the context of real-life dilemma than in the hypothetical dilemma, while children did not. And mothers showed more informative style of interaction in the context of real-life dilemma than in the hypothetical one.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correlation between mother's and child's level of moral reasoning was significantly high in real-life dilemma ( $r=.50$ ). Validity and classroom usefulness of real-life dilemma were discussed on the basis of the present results and Walker's arguments.

**Key Words :** moral reasoning · hypothetical dilemma · real-life dilemma · style of interaction